'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출판계,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

글_이주연 기자

지난 5월 10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열린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 결론은 한마디로 '출판진흥기구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출판계의 단결' 이었다. 출판계 내의 여러 단체와 기구는 정부가 발표한 출판진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4월 4일 발표한 출판진흥정책은 지식기반사회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출판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책으로 만드는 글로벌 지식문화 강국' 을 슬로건으로 세계 5대 출판지식 강국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 44개 사업 등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이 제시된 종합 진흥정책이다.

이 날의 정책 토론회는 진흥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출판계 내 의견 공청회 성격을 띤 자리였다. 문광부 김춘섭 출판산업팀장은 현안 설명에 앞서 이번 방안이 FTA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비난 여론에 대해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출판지식산업 육성TF' 를 구성해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출한 출판 정책이며 중장기의 비전 제시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 제반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철희 부회장의 사회로, 출판계 18개 단체의 정책담당 임원과 출판지식산업 육성 TF에 참여한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 담당은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문서에서 끝나고 말았다. 변화는 실행 주체와 실행력의 문제"라며 "출판진흥센터의 설립을 통해 시급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한국출판인회의 교육위원장도 "출판을 산업적 관점이 아닌 생태계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출판진흥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설립이 개별 단체의 이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출판계가 육성방안을 제대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출판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선언에서 끝나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출판계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점이다. 이번 육성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충분한 예산의 확보, 실행력을 겸비한 조직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출판진흥기구의 설립은 이번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과제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출판계의 많은 단체들이 출판계 전체의 이익이 달린 출판진흥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해서 얼마나 단합된 힘을 보여줄지 출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